

## 조국당 “전북도정, 국정과제와 맞춰야”

### RE100-AI 산업 전담 조직 필요 SOC 중심 사업 우선순위 조정 특례·제도 마련 실행력 높여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과감한 도정 재정비를 주문했다.

도당은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일부 도정 핵심 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전북 도정의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국가의 시대적 과제나 새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 정도가 약하거나, 우선순위에 밀릴 위험이 커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도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 기조 불일치다.

국정과제는 AI,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RE100, 균형발전을 시대적 핵심 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픽 유치 등 명분으로 개별 SOC, 대규모 토목 중심 사업이 우선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74개의 메가비전에는 미래 산업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새 정부의 비전과 연결되는 서사가 부족했다.

둘째,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다.

RE100, 피지컬 AI 등 일부는 국정과제와 방향이 맞지만 전력망, 임지, 규제 특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새 정부가 ‘분산형 전원 지산지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HVDC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정책 충돌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망, 새만금 SOC 패키지도 시기와 자원 확보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전북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도정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SOC 위주의 사업은 줄이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RE100 산업단지 등 피지컬 AI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유치와 신규 사업 발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을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재정 인프라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실행력을 높이

고 지방비 부담 차등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 및 특례 적용,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필수 배치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이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려면 방향의 부합과 실행 조건의 충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과 도정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며, 그 변화의 출발점은 도민의 선택으로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80년 전 함성, 오늘의 전북서 다시 울리다

지난 15일 전북도청 공명장에서 열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 권요안 도의원, 한 달째 완-전 통합 반대 1인 시위

### 출근 시간대 완주 삼봉·봉동서 “일방 추진, 지역 갈등 키위” 여론조사 주민 71% 통합 반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달부터 시작한 1인 시위를 무려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완주군 삼봉지구와 봉동을 일원에서 주민 통합이 많은 출근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없이 강행되는 통합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식이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형식적인 전일, 편향된 홍보물 배포, 반대 여론 비하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권요안 도의원

직접 대화를 나누며 들은 목소리는 분명했다. 주민 대다수가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실시한 통합 관련 여론조사도 이러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 8월 초 데일리리서치가 완주군민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1.0%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에 앞서 7월 23-24일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도 완주군민 1,003명 중 65.0%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공약 이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행정안전부는 완주군민의 압도적인 통합 반대 여론을 직시하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정철 기자

## 김경수 “지방 재정자율성 강화해야”

###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발인 포괄보조사업 26배 확대 결정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장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은 유례없는 일로, 이재명정부가 균형성장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으로 다뤄진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 확대에 대해 국민 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단 2달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성장엔 주체가 되는 국가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보고 발표된 포괄보조사업(지특 자율계정)은 그 규모가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2.6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포괄보조사업이란 각 지자체별로 세출예산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이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성장전략의 주체로서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기재부,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 계획수립, 집행, 점검평가 등 전 과정별로 촘촘히 지원 관리해 나가는 한편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실시, 지방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포괄보조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혐의 일부 시인

### 경찰 소환 7시간 조사 후 귀가 보좌관 진술도 일부 확인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경찰 소환조사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주식차명 거래 의혹 등과 관련된 경찰에 소환,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에 15일 새벽에 귀가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



이춘석 의원

의혹을 시인했고, 앞서 소환된 보좌관 차모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을 주식을 거래한 시기와 주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주식거래

내용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과 거래한 주식이 자신의 직무인 AI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차명주식 거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재신 미신고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분회회장에서 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

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차씨 휴대폰에 깔려 있던 주식 거래 앱 회사인 미래에셋 증권에 압수 수색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11일엔 이 의원 사무실에서 관련 PC 등을 확보한 뒤에 차씨를 이날부터 이틀간 연속 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때 차 보좌관은 이 의원이 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거래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 차명 거래를 해온 것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사실상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도민을 웃음짓게, 전북을 아름답게

Make Jeonbuk beautiful,  
make citizens smile.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 (진북동)5층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 전북도, 64개 사업 특별교부세 313억원 확보

### 지역현안 202억·재난안전 111억 안전·재해 복구에 신속 집행 9월 추경 소비쿠폰 256억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등 총 64개 사업에 3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역현안사업에는 202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주요 사업을 보면 ▲군

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원) ▲ 전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9억원) ▲ 익산 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8억원) ▲지방도720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8억원) ▲김제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10억원) 등이다. 또 재난안전사업에는 111억 원이 투입되며, ▲죽림교 재가설사업(8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10억원) ▲전주 서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6억원) ▲진

안고원 제설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참고 신축(6억원) ▲고창 수동사포지구 침수 예방 사업(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특별한 전북시대' 실현과 도민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행안부는 올해 4월과 7월 폭염대책비 50억 1000만 원과 7월 16~19일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과 재해 복구

를 뒷받침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적극적인 중앙부처와의 소통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9월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도비) 분담금 256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도, 전주올림픽 도민참여 분과회의 개최

### 다양한 분야 관계자 의견 수렴 도민 참여 확대·공감 형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도민참여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 의료, 여성 장애인, 외식 숙박, 도시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도민참여 분과는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 내에서 도민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 추진 현황 공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분야별 협력 방안 등이 안건

으로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가 지역 주민들의 주인 의식을 높이고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도 2036하계올림픽 유치추진장은 "전북 전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는 도민과 지역사회, 행정의 힘을 모아 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하고 전주를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 김관영지사, 전북 핵심사업 예산 반영 '마지막 설득전'

### 새만금 SOC·문화예술인프라 등 신규사업 국가적 파급효과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마지막 설득전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김지사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전략사업들을 집중 건의했다. 새만금 개발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관공선 건조 ▲김제유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SOC 그린인프라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으로는 ▲국립모두예술문화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 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방사선 기반 소재 장비 기술 혁신화 사업 등을 요청했다. 또 임기근 2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6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의 사업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건립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부안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국가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전략적 투자임을 강조했다. 출국지원센터는 장기보호외국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4일 전북 핵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면담했다. <사진=전북도>의 인권 보호와 국제기준 부합, 경찰수련원은 공무원 근무환경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은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과 산업경쟁력 확보,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는 어촌 인구감소 해결과 수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는 세계 태권도 인재 네트워크 강화, 부안 탄소중립 체험관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광복 80주년 경축식서 선열 희생 기려

### 900여명 참석, 광복 의미 되새겨 이석규 애국지사 헌신 재조명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공영장에서 도내의 주요 내빈과 국군장병, 보훈단체 회원, 도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축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감격과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100년을 향한 전북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경축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집견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광복회 전북지부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호남지역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99세) 선생이 소개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무대 위에서 이석규 선생에게 꽃다발과 위로물품을 전

달하며 건강과 안병을 기원했다. 이석규 선생은 지난 1943년 광주시법학교 재학 시절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봉기를 준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그의 숭고한 헌신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경축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부채춤으로 시작했다. 화려한 부채 물결과 경쾌한 선율로 광복의 기쁨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군산 푸른소리합창단이 '내 나라 우리 땅'과 '광복절 노래'를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합창했다. 관객과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80년 전 대한독립만세의 합성을 재현했다. 마지막 순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울려 퍼진 만세삼창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이석규 선생에게 꽃다발과 위로물품을 건네고 있다. <사진=전북도>부대행사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주관 광복절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가 열려 태극기, 독립운동가 등을 주제로 한 14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또 전북지역독립운동추진탐에서는 한화 분향 묵념이 이어졌으며 기관장 유족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렸다. /장정철 기자

##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의 재난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1건에 50억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남원의 경우 3건에 12억원, 장수는 3건에 15억원, 임실은 2건에 11억원, 순창은 3건에 12억원이라고 밝혔다. 남원의 12억원은 ▲송동면 백평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5억원)은 용수로 개보수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영농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인제학당 건립사업(4억원)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동동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시설물 설치(3억원)는 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의 15억원은 ▲장수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5억원)은 교통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5억원)은 다양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장수 지역에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급경사 지역의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

기 위한 ▲선창1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도로사면 정비사업(5억원)도 반영됐다. 임실의 11억원은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8억원)은 면청사,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사가 급하고 골짜기 심하여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순환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3억원)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순창의 12억원은 ▲순창읍 신촌길 인근 수변길 조성사업(7억원)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도환경 및 우수한 경관 조성에 이바지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인 배재교 교량 보수공사(2억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천 재해예방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천 하류 하상정비 사업(3억원)도 포함됐다. /서울=김영목기자



박희승 의원

## 폭염 속 에너지 절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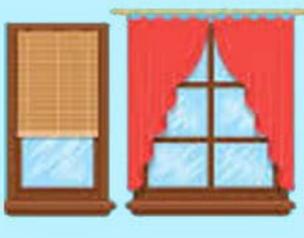
**에어컨 작동시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이상) 환기하기**



**전기사용이 많은  
오후2~5시 전기사용 줄이기**



**실내 적정 온도  
26도**



**커튼과 블라인드로  
직사광선 차단하기**

# 전주시, '함께금융 아카데미' 맞춤형 금융교육

**금융교육센터장 김혜선  
강사 초청 고립·은둔 청년  
자립 기반 목표 교육**

전주시가 '함께금융 아카데미'를 열고 고립·은둔 및 가족 돌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는다. 지난 14일 시는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힘을 주는 자립금융' 첫 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함께 힘을 주는 자립금융' 교육에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금융교육센터장 김혜선 강사가 초청됐다. 김 강사는 이날 '금융 기초 상식 및 자산관리법' 주제로 첫 회차 교육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강사는 고립·은둔 및 가족 돌봄 청년들에 자립 기초지식이 될 금융 기본 개념, 올바른 저축과 투자 위한 금융상품 바로 알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디지털 금융과 변화하는 금융생활(21일)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28일) 등 총 3회차 과정으로 '함께 힘을 주는 자립금융'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대상자들이 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경제적 자립 도모,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 정보 격차 해소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융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주시가 전북 금융중심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가 '함께금융 아카데미'를 열고 고립·은둔 및 가족 돌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는다. <사진=전주시>



## 전북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남초교스쿨존 50km/h 상향  
'시간제속도제한' 적용**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전주시 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간제속도제한' 적용 구간은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0m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h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에 따르면 어린이 통행이 거

의 없는 오후 8시~오전 7시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3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앞으로 군산, 남원, 임실 등 13개소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적용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전북변호사회, "가정법원 반드시 설치돼야"

**"전북, 가정·소년 사건 병행  
전문성과 효율성 한계있어"**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가정법원 설치 위한 간담회를 지난 14일 의정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남관우 의장, 정성길(시인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며 전주·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의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성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



전주시의회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 위한 간담회를 지난 14일 의정실에서 열었다. <사진=전주시의회> 와 정부에 촉구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AI 활용 홍보 교육'

전주시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스토리엔' 대표이자 한국생산성본부 홍보마케팅 전임교수인 김태욱 강사가 'AI 시대의 작은도서관 홍보 실무'를 주제로 △도서관 홍보(PR)의 이해와 홍보 소재 △AI와 함께하는 PR 업무 ABCD △AI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강의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서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성형 AI의 기

본 활용법을 다뤘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중심의 심화 교육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김건수 전주시 사립작은도서관협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홍보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됐다"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앞으로 관내 작은도서관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 전통시장 화재예방 능력 강화

**중앙시장 등 5개소 소방시설  
상태 점검 등 안전교육**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활동은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인과 시민들이 직접 전기·가스·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했다. 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초기소화, 피난유도, 화재확산방지 등 행동요령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하며 실

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예방안전팀과 서신119안전센터는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병행 추진했다. 또 골목길 주차 및 이종주차 등 불법 주차차 문제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양보와 협조를 당부해 경각심을 높였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휴가철과 명절 전후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급증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며 "시민 모두가 스스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차 길을 비워주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 14일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개소를 중심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 교통경찰, 3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추진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기간 3명인 것에 대비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특히 사고는 41.4%(29→17건), 부상자는 29.7%(37→26명) 감소 성과를 거뒀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으로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얻어, 아직 남은 기간에만 아니라 지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해 2025년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ZERO'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 을지연습 기간 비상대응태세

**군·경·지자체 등 유관기관  
비상대비 정부 합동훈련**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2025 을지연습'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응태세를 가동한다. 전주덕진소방서의 '2025 을지연습'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형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가정해 군·경·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훈련이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훈련에서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편제에 따른 직제편성 훈련 △유관기관과의 상향 공유 및 합동대응 절차 숙달 △다중이용시설 화재·테러 대응 모의훈련



△주민대피 유도 및 응급처치 교육 등 권기현 서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지키는 안 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 상황 대응역량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인후2동 지역아동 특별행사 아이들 '환호'

**주민자치위 특화사업  
식사·문화활동**

지난 14일 덕진구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선)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특별행사 활동은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속에 추진됐으며, 더불어 지역아동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고자 마련됐다. 아이들 위한 자리에는 주민자치위원, 시·도의원이 참여해 지역아동과 점심 식사 및 영화를 관람했다. 여기에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은 나눔봉사 위한 얼음생수 등을 들

고 다니며 폭염에 지친 모래내시장 상인과 마주한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지역 주민 및 시장 상인들은 인후2동 자치위원 특별행사에 "고맙고 감사하다. 자치위원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 한다"며 큰 환호로 감사를 전했다. 이용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인후2동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연 인후2동장은 "지역사회 따뜻한 관심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한다"며 "지역아동 위한 준비에 참여해준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내 첫 '우량비료' 지정

## 피복복합비료 1호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

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 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등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도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 비료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은행사랑봉사단, 익산 작은자매의집에 4백만원 기부

## 발달장애인가족들 전용 캠핑장 운영 설비 설치 기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익산 작은자매의집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작은자매의집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 및 놀이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야외활동 조성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관내 부지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친환경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있는 작은자매의집은 이번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다양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의 전용 캠핑장 운영을 위한 수도와 전기설비 설치로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달식에는 작은자매의집 원종훈 원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익산지점 김목춘 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조금이나마 개선돼 지역사회와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익산 작은자매의집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김은지 기자

# 농진청, 양봉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9월 19일까지 양봉산물 조리법 개발·작품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예선 참가자를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양봉산물을 활용한 간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한 입 거리 요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가 함께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 등이 후원한다. 참가자들은 벌꿀,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수벌 번데기 등 다양한 국산 양봉산물을 활용해 조리법을 개발한 후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양봉요리 경연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며, 본선은 10월 25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현장 경연

으로 치러진다. 경연 후 총 10팀을 선정해 대상 수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양봉산물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이 외에 최우수상(3팀), 우수상(3팀), 특별상(3팀) 등에게는 주관·후원 기관장상을 각각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품권, 양봉산물 제품을 제공한다. 대상 수상작은 앞으로 양봉산물 소비 확대와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양봉요리 경연대회는 국민이 양봉산물을 더 쉽고 맛있게 즐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국민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농협, 쌀의 날 맞아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

## 심리향신동진 등 전북 쌀 홍보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쌀의 날을 맞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과 전북 쌀 홍보활동을 지난 13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침밥먹기 캠페인 포토존 운영, 쌀 가공품 전시, 사진 등재시 경품 뽑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쌀, 햅반, 김세트 등을 증정했다. 캠페인에서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전북광역브랜드 쌀인 심리향을 비롯해 신동진 쌀 등 밥 맛 좋고 품

질이 우수한 전북 쌀을 적극 홍보했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쌀의 날을 맞아 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과 맛있는 전북 쌀 판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쌀의 날은 한자 쌀(米)을 팔(八), 십(十), 팔(八)로 풀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 11번째를 맞이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대병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 환자 건강상태 고려 최적의 약제처방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와 주사제 등 약물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내역 중 원내·외 처방 약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대병원은 평가 결과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6.25%(전체평균 45.2%),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5.99%(전체평균 61.86%), 주사제처방률 1.04%(전체평균 13.23%) 등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은 사용률을 기록

해 주사제와 항생제를 적게 쓰는 병원임이 확인됐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평가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위해 최적의 약제 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의료진과 직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처방과 철저한 약제 관리로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주혁신신협, 만성지구 환경보호 실천 '앞장'

## ESG 경영 이사장·임직원들 쓰레기 수거 등 거리 청소

전주혁신신협(이사장 임승기)은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 일대에서 '전주혁신신협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전주혁신신협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북지역본부 강연수 본부장과 전주혁신신협 임승기 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의 임직원이 거리로 나섰다. 두 팀으로 나뉘어 대로변과 사무실 인근 만성북로 일대를 정화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비닐봉지, 플라스틱 페트병, 휴지, 담배꽂이 등과 같은 쓰레기를 수

거하고 분리 배출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인근 거리를 정소해 환경보호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번 플로깅 프로그램은 '전주혁신신협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경영방식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친환경 경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전주혁신신협 임직원은 모든 회의에서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시행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종이문서 사용을 자제해 ESG 경영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임승기 이사장은 "거리풍경은 인근 주민들의 얼굴이며, 우리의 얼굴을 단장하는 일 또한 경영인이 갖춰야할 기



본 소양이라 생각한다"며 "플로깅 운동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인자위, 총 856명 특화훈련 최종 확정

## 전년 대비 2배 확대 12개 직종 맞춤형 인력양성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하 전북인자위)는 12일 '2025년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2차 공모 결과 최종 확정했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14개 특화훈련 과정에 31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2025년 전북인자위의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은 1차, 2차 공모를 종합해 총 856명 규모로 확정됐으며, 당초 목표인 800명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선정된 총 12개 직종, 38개 특화훈련 과정은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성됐다. 특히 지역의 핵심 지원 산업인 건설업, 자동차 부품, 식품 산업과 더불어 스마트농생명, 미래 수송·기계, 정보통신융합 등 육성 산업을 포괄해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훈련을 운영하며, 건축시공·용접·전기공사 등 전통 산업 분야부터 정보기술개발·스마트물류 등 첨단 분야까지 12개 직종에 걸쳐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모든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다. 전북인자위는 더 많은 구직자, 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취업·창업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인자위 관계자는 "이번 특화훈련을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보통신융합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통해 전북이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공공형계절근로자에 폭염대비 물품 전달

## 쿨타올·백쿨러 등 지원 '근로 환경 개선 보탬 되길'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에서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쿨타올·백쿨러·그늘막 등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운영 중인 '시도형 농촌인력증가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의 일

환으로, 지역 내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24년 11개소에서 올해는 1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은 농촌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 학생 3명 중 1명, 사이버폭력 피해

## 미래교육정책 발표 결과 언어폭력 가장 많아 복수하고 싶다 응답도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17일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2023년 9월~2024년 8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생의 33.7%가 사이

버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시했으며, 도내 초등교 4~6학년 201명, 중학생 162명, 고등학생 167명 등 총 530명이 참여했다. 사이버폭력 발생은 초등학교(3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했다. 중학교는 32.7%, 고등학교는 32.2%였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욕설 등 언어폭력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명예훼손(14.5%), 스토킹(6.7%), 개인정보 유출(5.1%) 등 순이었다. 사이버성폭력도 4.9%에 달했다. 피해 경험 경로(복수 응답)는 문자나 메시지가 50.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SNS, 온라인게임, 메타버스, 개인 방송 서비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모르는 사람(50.8%)으로부터 당한 피해가 가장 컸다. 친구나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는 각각 34.1%, 4.3%였다. 피해 경험 후 심리상태와 관련한 질문에선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우울과

불안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은 17.9%였다. 의욕상실(15.3%)과 불면증과 두통(11%) 등에 시달린 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이 증가하면서 많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무주덕유산리조트, 지역 상생 '맞손'

'상제루' 복원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을 제공해 지역 공헌에도 나선다. 덕유산리조트가 추진 중인 설천봉 '상제루' 복원 공사에는 전북대 환경건축사협단이 참여해 기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보유한 전문성과 인재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표적 상생 모델"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 지역에는 전문적 기여를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미래형 수업혁신 준비 '순조'

##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2차 연수 성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형 수업 혁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인텔코리아 본사에서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하 인텔® SFI)' 2차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인텔의 업무협약 사업인 인텔® SFI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 프로그램으로, 마스터 코치를 양성해 우수 수업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교사 양

성과의 일환인 이번 2차 연수는 도내 초·중등 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텔® SFI 스타터 팩을 활용한 미래 핵심 역량 중심 수업 설계 실습과 모의 수업, 우수 수업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컴퓨터로 3D 장면을 만들어 보는 가상 실험, 간단한 대화형 프로그램(챗봇)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으며, 모둠별로 수업을 설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에는 1차 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까지 두 차례 성공적으로 마친 인텔® SFI 연수가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미래형 수업혁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인텔코리아 본사에서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 2차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2차 연수는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AI와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학생 중심의 미래형 수업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무패행진 전북현대, 팬들과 함께 기억한 '광복 80주년'

## AI 기술 활용 도산안창호 선생 모습 복원외손자 시축

전북현대모터스FC가 지난 16일 대구 FC와 K리그 1 홈경기에서 '광복 80' 주년을 팬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2만 3천여 명의 관중은 경기 시작 전부터 특별한 시축 장면에 숨을 죽였다. 시축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인 '필립 안 커디' 씨였다. 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교류를 이어나가며, 교육 활동을 통해 도산 선생

의 유산을 기억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날 전북현대를 찾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전북현대는 '필립 안 커디'씨의 시축과 함께 AI 기반의 영상 복원 기술을 활용해 전광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전 모습을 되살렸다. 전주성에 나타나 팬들과 손자를 맞이하는 듯한 따뜻한 도산의 미소가 재현되자, 경기장 곳곳에서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함성과 박수가 이어졌다. 필립 안 커디씨는 경기 후 "뜻깊은 자리에 초청받아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팬분들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진한 감동이었다. 다시 이 전주성에



올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언제나 함께하겠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전북현대는 대구 FC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하며 2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장정철 기자

## 전주대,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지난 13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총 8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이중 70명은 학사, 4명은 석사, 7명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국제교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에서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교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호남경영학과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글로벌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건강한 여름나기

**물은 자주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

**매일 기온확인하기!**

**폭염이 강한 시간대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잊지마세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아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어린이**



### 군산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및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선열과 애국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기렸다.

경축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

전년권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군산·김제·부안연합회지회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목숨을 건 송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축식을 마친 광복회원들은 은파호수공원 내 '군옥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며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96명 모집

정읍시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 96명을 모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정읍시 관내 표본조사구(20%)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조사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현장조사 지도·지원 업무를 맡는 관리요원은 8월 22일까지 접수한다. 합격자는 관리요원의 경우 9월 1일, 조사원은 9월 24일 SMS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신청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정읍시 정보통신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중 전담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능숙한 사람,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참여 경험자, 조사지역 거주자, 다자녀가구·장애인·저소득층 등은 우대한다.

모집 관련 문의는 정읍시 통계조사종합상황실에서 안내한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시, 시민 안전이 최우선 민방위대에 응급처치세트 지원

정읍시가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 읍·면·동 민방위대에 비상응급처치세트 100여 개를 배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응급처치세트는 출혈, 골절, 화상 등 다양한 부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형 경박 △탄력밴드 △상처치료연고 △에어패드 △순드레싱 등으로 구성됐다. 위생적인 처치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가방 형태로 제작돼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다. 현장에서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미한 사고에도 응급장비 부족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보급으로 병원 이송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상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올해 세 번째 인구 증가

### 7월 기준 41명 순증 출생아수 지난달 102명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이냐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올해 들어 세 번째 인구 순증을 기록하며 '반전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구는 26만 7,659명으로 전월 대비 41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308명, 4월 161명에 이어 세 번째 순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7월은 대학 종강과 하반기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의미를 더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7월마다 평균 364명이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세는 이례적이

다. 더욱이 지난 3월 이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없었음에도 지난달 순증을 기록해, 여러 물리적 여건을 뛰어넘은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출생아 수 역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 출생아 수는 2022년 이후 줄곧 두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102명을 기록했다. 출생률 회복은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 폭을 줄이는 긍정적 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현장 중심 도시인 홍보'로 정책 변화에 맞춘 신속 대응 △정주 여건 개선 노력에서 찾고 있다.

최근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륵사지휴게소를 비롯해 보석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 등지에서 인구정책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광 안내와 함께 시 인구정책을 홍보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 물량이 남아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인근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다른 지역 시민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분양 상담 시 실질적인 인구정책 정보를 제공했다.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행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인구 관심 지역' 관리 확보를 건의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생활인구 정책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대응했다. 시는 앞으로 생활인구를 지역 활력 지표로 삼고 체류형 관광사업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 정책을 강화해 '유입-정착-통합-협업체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 인구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로 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정현을 시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익산이 보여준 순증세는 값진 성과이며, 더 큰 변화를 이끌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희망의 도시, 반전의 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코워킹 스페이스', 바이오 창업기업 성장 거점

### 7개 바이오 기업 입주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조성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바이오 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6월 문을 연 공유사무실에는 현재 7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세포·항암·면역 치료제, AI 헬스케어 솔루션 등 첨단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119㎡ 규모의 개방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독립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와 연구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시는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회계, 특허 등 경영 전반을 컨설팅하는 기업과 투자·펀드 운용 등 자



정읍시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진=정읍시>

금 지원을 담당하는 2개의 기업체를 함께 유치했다. 이를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 내에 상호 보완적인 기업 생태계를 형성, 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간담회를 열어 입

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시, 농림수산물발전기금 8차 접수

### 농업인·청년농 금융지원 확대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농림수산물발전기금' 8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로, 연리 2%의 융자금이 제공된다.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에게 연리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는 농산물 가공서비스업, 산지 수매·저장사업, 경영안정사업 등

이 포함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의 경우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 최대 30억원, 수매·저장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촘촘한 급식망 가동... '방학 중에도 든든하게'

### 2,500여명 방학중 결식우려 해소

익산시가 여름방학 기간 아동과 청소년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급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급식 복지망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47개소 1,227명의 아동에게 하루 한 끼를 지원한다. 45개 센터는 직접 조리해 식사를 제공하고, 조리가 어려운 2개소는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위생, 식단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습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에 대한 급식 지원도 강화했다.

그간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자 부담을 통해 급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 여름방학에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활용해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에서는 168명의 이용 아동 전원에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도시락 형태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초등돌봄 건강 도시락 사업'도 확대됐다. 시는 현재 29개교, 1,1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은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당일 제조하고,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위생·배송·식재료 조달을 총괄해 학교에 직접 전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생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20여 명에게 주 2회, 중식과 석식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검정고시 대비반 수강생에게도 중식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급식 지원 사업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학부모 부담 완화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사업 추진

### 관내 무더위쉼터 15개소 활용

군산시가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잠시나마 작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늘어나면서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열사병, 탈수 등 건강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무더위쉼터 15개소에 생수를 상시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는 △구암동 △경암동 △나운 1·2·3동 △미성동 △삼학동 △소룡동 △수송동 △중앙동 △해신동 △흥남동 행정복지센터 12곳과 △시간여객관광안내소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안내소 △군산시립도서관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의회, 역대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의정운영·지역발전 위한 논의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14일 역대 의원들을 초청해 선배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의회 제1대부터 제8대까지 의정활동을 해온 역대 의원들을 초청해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듣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운영 전반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경진 의장, 강경숙

부위원장 등 의정단은 선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활발한 대화를 이어갔다.

김경진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지역현안과 우리 의회 발전방향에 관해 선배의원들과 소통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현직 의원 의정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석중 전 의원은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족의 발전을 이룬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여름 절정의 8월, 군산이 축제로 물든다

군산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관광객과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축제가 이어진다.

지난 8일 개막했던 '군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전국 8곳에서 순차 진행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 주관 행사로, 군산이 첫 무대를 장식했다.

올해 주제는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로,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손녀의 시간여행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했다.

8월 22~23일, 29~30일 두 차례 열리는 '군산야행'은 밤에 즐기는 군산의 대표 문화유산 축제다.

올해는 해방굴이 추가돼 5개 권역·9가지 테마로 확대되었으며, 각 권역에서 해설사 해설,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북페어'도 8월 30~31일 나운동 군산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나눔, 보살핌, 출판'으로, 전시·대담·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군산시는 이번 3대 축제를 통해 여름밤을 풍성하게 채우고, 문화·역사·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시민배심원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

익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나섰다.

익산시는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가동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민배심원은 익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무작위로 선발된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조정과 이행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 시민배

심원제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 공약 이행 점검 안전 선정을 위한 분임 토의도 열렸다.

앞으로 시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조정과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회의 결과로 마련된 조정안과 권고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정책결정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지평선축제,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다

## 문화공간 '리얼월드'서 팝업스토어 홍보부스 8개 축제와 함께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널리 알리고자 2025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리얼월드'에서 팝업스토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금산세계인삼축제, 광주김치축제와 경북 산골 피해 지역 인근 문화관광축제인 안동탈춤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8개 축제에 참여한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팝업스토어 '구석구석 마트'는 체험형 공간으로, 방문객들이 관심있는 축제를 선택해 게임형 콘텐츠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제지평선축제 부스에서는 핵심 콘텐츠인 '아궁이 쌀밥 짓기'를 밭짓기 명인 컨셉으로 재미있게 재현하며, 토속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리얼월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10월

8~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족·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축제의 밤을 더 빛낼 야간경관 조성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벽골제 행사장에서 이벤트와 상설체험 부스를 운영해 귀성객과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이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친근감과 관심을 높이고, 가을 여행지로서 김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축제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미스변산수상자 홍보대사 위촉

부안 주요 관광지 홍보에 답을 예정이다.

변산해수욕장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열리는 '변산 비치팝' 현장을 찾아 축제의 활기와 여름 바다의 매력을 담는다.

이번 촬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부안관광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작된 홍보 콘텐츠는 부안여행 공식 SNS 채널과 부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게시되며,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부안을 친근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시키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부안관광 홍보대사들은 각종 관광 홍보 행사, 축제, SNS 콘텐츠 제작 등에 적극 참여하며 부안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김제시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14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독립운동유공자 후손,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 및 경축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개, 국민의례 및 애국가제창, 기념사, 경축사, 만세삼창에 이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경축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만세삼창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퍼포먼스를 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그분들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 모두가 애국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독립유공자 후손 위문·명패 달아드리기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성내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경숙 씨의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경숙 씨의 조부 유상학 지사는 1919년 태극기를 대열의 선두에 세우고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을을 누비는 사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헌병에게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1992년에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정성스럽게 달아드리며, 사전에 세심히 준비한 마음을 담아 존경과 예우를 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이 널리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김제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인터넷 및 전화조사 10.22~11.18, 방문면접조사 11.1~11.18)까지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추진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조사관리요원 7명, 조사원 61명 등 68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조사관리요원은 오는 22일까지, 조사원은 내달 17일까지이며, 지원서 접수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와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에 성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태블릿 등 스마트폰이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통계청 주관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인구, 가구, 주택 규모 등을 파악해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 4명 서훈 확정

## 오홍탁·곽길수 박부길·이은숙

고창군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정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서훈이 확정된 인물은 △오홍탁(대통령표창, 학생운동) △곽길수(대통령표창, 학생운동) △박부길(대통령표창, 학생운동) △이은숙(애족장, 국내항일)으로, 모두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창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오홍탁, 곽길수, 박부길 선생은 학창 시절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항일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애족장을 받은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투쟁에 앞장서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성과로,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용역을



'동아일보' 1929년 6월 27일자 중 오홍탁 선생이 고창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 사건으로 학우들과 함께 체포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실시하고 각종 사료와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

특히 심덕섭 고창군수가 직접 국가보훈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고창의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게 된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역사적인 일"이라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군민 모두가 자긍심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18~21일 부안군, 2025년 읍지연습 실시

지역 안보·주민 안전 강화

부안군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지역 안보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읍지연습을 실시한다.

읍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전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다. 올해는 민·관·군·경·소방 협력을 강화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훈련은 18일 읍지 2중 시태 선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해리교차로 보강토옹벽 보수 주민설명회

고창군 해리면(면장 홍정목)이 지난 12일 주민행복센터 회의실에서 '해리교차로 보강토옹벽 보수·보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지난 6월14일 붕괴된 국도 15호선의 보수·보강 추진 상황 및 공법 설명과 사업추진 방안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구간은 해리면 뿐만 아니라 인근 3개면(무장, 상하, 심원)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아 신속한 복구와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곳이다.

설명회에는 군 관계 공무원, 차남준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내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각 기업별로 지난해 소요된 물류비 및 폐수 배출 위탁처리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압류 명품·귀금속 등 28점 전자공매

## 9월 1~3일 전북도청 로비서 진행

부안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 고가 동산 28점에 대해 전자공매를 진행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북자치

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현장을 방문하면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공매 대상 물품은 모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전북자치도와 부안군은 이번 매각을 위탁수주료 없이 직접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 재무과장은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납세 역량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부터 압류, 자산 매각까지 강력히 추진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 새 이름 '고창그린마루'

## 군민 공모로 선정 생태복원 상징 담바

고창군이 고창읍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지의 공식 명칭을 '고창그린마루'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명칭 공모는 지난 7월7~14일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총 56건이 접수됐다. 적합성과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10건을 1차 후보로 선정했고, 이후 1차 설문조사를 통해 4건을 추린 뒤, 2차 설문조사와 신림면 '책이 있는 풍경 작가회' 자문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고창그린마루(Gochang Green Maru)'는 고창의 자연과 생태, 미래 가치를 아우르는 도시 생태축의 상징 명칭이다. 도시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중심 허브이자 생명의 흐름을 회복하는 공간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 <사진=고창군>

고창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고창읍 덕산계 일원과 고창읍성, 자연마당, 꽃정원, 노동자수지, 소생태공원 일원의 생태축을 연결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복원한 사업이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태복원 1번지 고창의 생태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다"며 "앞으로 '고창그린마루'를 중심으로 생태환경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의의회 “통합 반대 활동 이어갈 것”

## 13개 읍·면 주민설명회 마무리 캠페인·간담회 등 지속 추진 계획

완주군의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13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 뜻 따라 통합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며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김판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 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과 PPT를 활용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합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합류음 사례 △



완주군의의회는 지난 14일 주민설명회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완주군>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완주군의의회 활동을 지지하고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비판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30년간 전주시가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젊은 층 유출 방지 등 전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일부 참석자는 통합 찬·반 양측의 자료를 종합해 통합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제공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완주군의의회는 앞으로도 △메일 아침 주요 거점 통합반대 캠페인 △경로당·마을회관 방문 설명회 △청년단체·지역단체 간담회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면담 등 주민 간 갈등과 유류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의 71%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군민들의 뜻을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제3회 ‘꼬마들의 순창 물놀이 오락실’ 연다

## 발효관광재단, ‘뽕순락’ 개최 가족 맞춤형 여름 프로그램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은 오는 23일 토요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여름철 대표 축제 ‘제3회 뽕순락(꼬마들의 순창 오락실)’을 개최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축제의 가장 큰 인기 프로그램인 ‘물총놀이 오락실’은 테마파크의 넓은 잔디 공간을 활용해 시원하고 활기찬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인기 캐릭터 ‘엄마까투리’ 싱어 룩소가 하루 두 차례 공연되며,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와 버블쇼도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에서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오는 23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여름철 대표 축제인 ‘제3회 뽕순락(꼬마들의 순창 오락실)’을 개최한다. <사진=순창군>

는 방송 제작 체험이 가능하며, 원형광장에는 ‘뽕순락 라운지’가 조성돼 관람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재미있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행사의 마무리는 ‘선셋 돛자리 영화관’이 장식한다.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국제드론제전, 네 가지 테마로 다채롭게

## 10월 남원종합스포츠타운서 개최 대화전시체험글로컬푸드 축제

남원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27년 남원DFL 드론레이싱 월드컵 유치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며, 이를 계기로 드론레저 스포츠를 세계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합

공안전기술원의 국내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K-드론 투 월드 페스티벌(K-Drone To World Festival)’에서 부산, 전주, 포천, 남원 4개의 지자체가 각각의 지역행사와 연계해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와 축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운영한다.

특히 드론레이싱 중추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국제 규모의 드론 대회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원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남원시가 주최하는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을 수요한 교육생들이 직접 제전에 참가해 다양한 경기 및 이벤트에서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드론·로봇 스포츠대회, 전시·컨퍼런스, 공연·체험, 글로컬푸드 페스티벌 등 네 가지 테마로 열린다. 청소년 드론스포츠 리그, 로봇배틀쇼, 시민 참여방제 드론대회 등이 펼쳐지며 드론 라이프스와 에어쇼, 남원 향토 음식과 세계 20여개국의 음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푸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헌정회, 생태계 유해 어종 퇴치 ‘맞손’

## 블루길·베스 등 퇴치·자원화 비료화로 농어업인 경영비 절감

완주군이 지난 14일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와 손잡고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블루길·베스 등 생태계 유해 어종 퇴치와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루길과 베스는 약 40년 전 국내에 유입된 뒤 토착화 단계에 이른 대표적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토종 치어·새우류 등을 부분별

하게 포식해왔다. 환경부는 이들을 생태계 유해 어종으로 지정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포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규모 예산 한계로 지속적인 퇴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양식 어가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농가·양식어가는 사료비 인상과 어분 수입 증가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사료·비료 업계도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주군과 헌정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

을 위해 포획한 유해 어종을 사료·비료로 활용한 가격으로 농·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환경오염 방지, 생태계 복원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계 교란 어종 포획·수집 협업 체계 구축 △수매 어종의 사료·비료화 통한 사료·비료 업계도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착한가격업소’ 법인·포장·배달업 확대

## ‘착한업소’ 이달중 신규 모집 지정업소요금감면시설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이달 29일까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은 높고 가격은 합리적인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현재 남원시는 착한가격업소 34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준비해 남원시청 기업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청결한 환경, 친절할 서비스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업소로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

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관 합동 현지실사평가단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을 평가한 뒤 9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설치 △맛추형 물품 지원 △상수도요금 30% 지원 △위생 방역 소독 및 전기안전점검 지원 △시설 개선 사업 지원(간판, 샷시 교체 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예술인 작품 공개구입 심의위원회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공정한 작품 선정 심의를 위해 2025 ‘완주 예술인 작품 공개 구입’ 심의위원회(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최종 선정된 위원회는 완주 예술인 작품 공개 구입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모집은 시각예술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완주지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격은 △시각 예술분야 10년 이상 종사 경력 △관련 학회·기관·공공 프로젝트 10년 이상 참여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 예술품 구입 관련 위원회 5회 이상 경력 △예술대학 박사 이상 학위와 10년 이상 활동 경력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작품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되며, 최종 적격자에게만 개별 통지된다. 접수는 이메일(art-to-art@wfac.or.kr)로 가능하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심의위원회 모집은 완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전국 각지의 시각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ebts는 독도사랑 휴게소에서 광복 80주년 퍼포먼스를 했다. <사진=남원ebts>

# 남원 ebts 시니어들, 독도사랑 공연 펼쳐

## 조합원 250명, 노래·퍼포먼스 광복 의미·영토 수호 의지 강조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비티에스(ebts) 경주 독도사랑 휴게소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시니어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독도사랑 공연은 세대를 잇는 감동과 울림을 전하며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을 노래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외친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뿌리와 미래를 잇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시니어님들의 손길에 의해 펼쳐졌다.

모든 내용이 이비티에스 이승원 회장이 기획하고 주관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경주 독도사랑 휴게소의 넓은 광장을 꽉 채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조합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나라 사랑의 표본일 것이다. 남원지국 250명의 연합팀으로 원조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며 환상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8.15 광복절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애국적 행사·감동적인 행사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정하복기자

# 완주군, 평화의 소녀상 5주년 맞아 현화추모

## 삼례 책마을에 2020년 건립 인권 의식 확산 캠페인 진행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는 지난 13일 삼례 책마을에서 ‘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년 기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현화·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8월 14일 건립된 완주 평화의 소녀상이 5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단체 회장단과 실무

진 15명은 소녀상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현화·묵념을 통해 피해자를 기리고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다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삼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채미화 회장은 “완주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임과 평화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소 브루셀라·결핵 예방 채혈 지원

## 감염축조기 색출 확산 차단 목적

순창군이 한우유 사육농가의 건강을 위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 예방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 예방 채혈 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을 조기에 발견해 감염축을 신속히 색출하고,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한우유 사육 농가이며, 채혈 검사는 축산방역팀 또는 공수의를 통한 전화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채혈 기준은 사육 두수에 따라 구분된다. 6두 초과 농가는 공수의 또는

방역분부를 통해 채혈을 진행하며, 6두 이하 농가는 방역본부에서 채혈을 실시한다. 다만 기립불능우, 긴급 도축 등 긴급 채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6두 이하 농가도 공수의를 통한 채혈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 유효기간은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모두 2개월(60일)이며, 브루셀라병의 경우 도축장 출하 시에는 3개월(90일)까지 인정된다. 군은 출하 예정일 2~3주 전에 미리 신청해 검사를 완료할 것을 권장했다.

문의 및 신청은 순창군 축산방역팀(063-650-5641)으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기 한궁대회 14일 성료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4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한궁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의의회 의장을 비롯해 읍·면·동 분회장 등 주요 내빈,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15개 팀 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한궁은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그리고 서양의 양궁과 다르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생활체육 종목이다. 어깨와 허리 근육 강화뿐 아니라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어르신들은 2m 거리에서 투구하며 정확한 자세와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다.

치열한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단체전 3팀과 개인전 3명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전 최우수팀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개인전 최우수자에게는 8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곽철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모바일 어플 활용 걷기 챌린지...참가자 경품 제공

순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걷기 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무더위에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6,000보, 2주간 총 78,000보 걷기를 목표로 건강한 체력 만들기

에 도전하게 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다운로드한 후, 순창군 공식 커뮤니티 ‘행복순창! 걷기 좋은 순창!’에 가입하면 된다. 이후 챌린지 화면에서 ‘예약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목표에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순창사랑상품권 1만원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적절한 걷기 운동은 체력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더위로 인한 무기력함까지 극복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 특강반' 성황리 운영

장수군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 특강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건전한 방학 문화 조성...

처음에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조차 서툴던 아이들이 강사의 안내에 따라 점차 자신감 있는 동작을 보여주며 웃음 짓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고 물속에서의 작은 도전과 성취가 이어지며 수영장은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4060 한의약 건강교실 보건 교육·건강기초검진 등

무주군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무주보건의원 건강증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장수군, 중년남성 대상 건강식 조리실습 '요·남·자' 운영

장수군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8월 한달 간 60세 이상 중장년 남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조리실습 프로그램 '요·남·자'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 선정

사업 설계 완성도 등 호평 종합 평가 A등급

무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무주군 포함 단 두 곳으로...



주택배란다형 태양광

<사진=무주군>

홍보 등을 거쳐 관내 주택과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라며 "군민의 전기·난방비 절감은 물론, 지역 에너지 자립도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용담댐 수변구역 변경...주민 의견 수렴

오는 22일까지 의견서 제출

진안군이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며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은 이에 대한 수변 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재개장

점검·보수 작업 마무리 배롱나무수국등 여름꽃만개

임실군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재개장한다. 이번 재개장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마친 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개해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여름꽃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준비도 한창이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쾌적하게 붕어섬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동선에 콜링포그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개장 시기에 맞춰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정부예산 최종 반영 노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찾아 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 등

무주군이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로 가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다.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황 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군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예산이 마무리되면 국회 단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보수비용 2,500만원 지원 4년간 무상임대

진안군이 올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이나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가 중,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신청인 명의가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마무리한 뒤,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로서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제31회 청소년의 장 선발

사회단체장학교장면장 등 추천

임실군이 제63회 임실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같은 또래의 귀감이 되는 '제31회 청소년의 장' 후보자 추천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재학 중인 자 또는 임실군 출신으로서 부분별 공적으로 임실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가 대상자이다. 추천은 임실군 청소년의 장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장, 청소년 유관기관의 장, 기업체 대표, 학교장, 부시장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63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청소년의 장과 메달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장수군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정별 모집정원은 6~15명 내외이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장애인생활문화센터, 계남면종합복지회관 등 10개소에서 운영되며 장수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장수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환경교육강사 양성 과정 성료

지역사회 환경의식 확산기대

임실군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환경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은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총 20회차에 걸쳐 38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라 강의 지도안 작성, 개별 시연, 자문 등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실천 역량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한 (사)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 김윤배 이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강사들이 주민 중심의 환경 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임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시, 광복 8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 총 330세대 애국물결

정읍시 새마을회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 읍·면·동을 돌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애국의 물결을 일으켰다.

지난 14일 북면 원화해마을과 원화교마을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국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새마을회 회원 50여 명이 함께하며 광복의 뜻을 공유했다.

정읍 새마을회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원활한 국기 게양을 위해 각 가정에 국기꽂이를 직접 설치했다. 이어 행사 당일에는 180여 개의 태극기를 가가호호 전달하고 게양을 도왔다. 주민들에게는 태극기 게양에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며 나라사랑 실천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의 열기는 북면을 넘어 전역으로 퍼졌다. 지난 12일에는 입암면 왕심마을과 선암마을 100여 세대를, 13일에는 상고동 구계마을을 50여 세대를 찾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이어갔다. 사흘간 총 330여 세대에 태극기를 보급하며 마을 곳곳에 태극기 물결을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광복절을 기념해 뜻깊은 캠페인을 준비해주시는 새마을회에 감사드린다"며 "선열들의 땀과 희생이 만들어낸 평화와 번영을 소중히 지키고, 정읍이 하나로 뭉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묘회 어르신 4백여명에 갈비탕 나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도형스님)은 지난 14일 고창군 을묘회(회장 안성룡)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갈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고창군 을묘회(회장 안성룡)는 어르신들에게 갈비탕을 대접하고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해 어르신 400여명에게 갈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안성룡 고창군 을묘회 회장은 "무더위에 지치셨을 어르신들이 영양 가득한 갈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관장 도형스님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고창군 을묘회의 안성룡 회장님 및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상생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故 심기동 상병, 72년 만에 무공훈장 전수

부안출신 6.25 참전유공자 강원 금화지구 전투 공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4일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故) 심기동 상병의 조카 심유섭(77)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심기동 상병은 6·25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워 같은 해 7월 13일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사 통보와 함께 실제 훈장 전수는 이뤄지지 못

했다. 당시 심 상병은 전투 중 중공군의 포로로 억류됐다 1955년 송환됐으며, 귀향 후에도 포로생활 후유증과 지병으로 1960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입대 전 결혼했던 배우자는 전사 통보를 받고 이미 재혼한 상태였고, 고인은 홀로 힘겨운 전후 생활을 이어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오수원광어린이집, 사랑 나눔 카페 수익금 기부...저소득 가정에 '온경'

임실 오수원광어린이집이 원아와 교사들이 함께 운영한 사랑 나눔 카페 수익금 850,000원을 오수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난 11일 오수면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매년 원아들이 교사들과 함께 사랑 나눔 카페를 운영해 마련한 것으로, 원아들이 기탁식에 직접 참여해 성금 전달 과정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몸소 느끼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오수원광어린이집의 이번 기탁은 재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8월에도 사랑 나눔 카페 수익금 991,000원을 기탁해 오수면 내 저소득 10가구에 각각 1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오수원광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원아들과 함께한 사랑 나눔 카페 운영이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직접 배우는 현장 교육이 됐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시자봉센터, '청소년 역사·정체성 교육' 성황

역사 교육 태극기 나눔 봉사

군산시자봉봉사센터(이사장 황진)가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광복의 역사와 태극기의 상징성' 교육 및 미니 태극기 제작·나눔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태극기의 의미와 민족의 역사·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산=지승길 기자

참여 청소년들은 △군산의 일제강점기 역사와 쌀 수탈사 △광복의 의미 △태극기 속 건곤감리와 태극문양·색상의 상징성 등을 배우고 직접 미니 태극기를 제작했다.

송천구 군산시자봉봉사센터장은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독립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어르신 효어울림 마당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지회장 노영열)가 지난 11일 고창군 태흥 뷔페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어울림 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 여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7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정성껏 마

련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 신나는 난타와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을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

노영열 지회장은 "올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이 자리를 통해 고창군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안군에 2백만원 기탁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영현 수소 인프라운영실장 등 공사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재)부안군군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국의 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설비와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전문기업으로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의해 산업육성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부각된 수소 산업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안군과는 수소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안면과 진서면에 수소충전소를 위탁운영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권익현 이사장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 온풍 캠페인, 침수 피해 가구 교체·리폼 실습형 교육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대강면 나눔지역아동센터에서 '전북 온풍 캠페인-온기를 나누는 쓰임있는 하루'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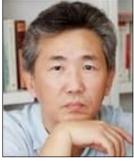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쓰임사회적협동조합 봉사단이 주관해 기후재난과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간식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12명이 참여해 과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합판 수납장을 안전한 목재로 교체·리폼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참여 아동들은 봉사자들의 지도에 따라 목재 절단, 조립, 마감, 도색 등 가구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공간 정리 습관과 가구의 소중함을 배웠다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침수 피해 가구가 새로운 쓰임을 갖게 된 것처럼, 이번 활동이 아동들에게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과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Advertisement for car safety with text: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것! and icons for hand sanitizer, electronics, sunglasses, and lighters.

〈一事一言〉



한미관계 재정립 재촉하는 한미 관세협상(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반응은 '선방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뺏속까지 친미사대적인 내란극우세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국이 다 들어줘야 한다는 매국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반응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민주진보 세력은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한국 정부가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최선의 결과라면서 기뻐하기도 한다. 단지 일부 진보세력만이 강도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협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뿐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위기를 자국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구촌, 특히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노골적인 강도질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을 포함하는 인구는 미국한테 강탈을 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날강도 미국에 당당히 맞서기보다는 '100억 원을 뺏으려고 했던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30억 원만 뜯기게 되었다'면서 안하고 싶지 않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왜 미국에 강력하게 맞서지 못했을까? 트럼프를 압박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

프는 뺏속까지 장사꾼이다. 그에 협상이란 단지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일 뿐이다. 만일 상대방한테 자기에게 줄 이익이나 자기를 압박할 카드가 없다면 트럼프는 곧바로 강도로 돌변한다. 몇 달 전에 있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젤렌스키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객기를 부렸지만 트럼프한테서 "너한테는 카드가 없잖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너한테 카드가 없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잔혹한 계산법이다. 즉 주고받기 식의 대등한 협상은 가진 것이 있는 상대 혹은 강한 상대하고나 하는 것이지 빈털터리 혹은 약한 상대는 단지 탈탈 털어 먹을 봉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준비하지 못한 채 관세 협상에 임했다. 한국이 트럼프를 압박하거나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반미의식이 충만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다. 만일 반미의식으로 무장된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에게 의지하면서 미국과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소국으로 평가되는 예멘이 미국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투철해서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미국을 하늘처럼 받드는 내란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들은 공미(僞美), 숭미(崇美)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미 심리가 기승을 부리게 된 출발점은 해방 직후 미군의 한국 점령과 이어진 한국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미군정 아래에서 사대매국적이고 반국민적인 이승만 정부의 뒷배인 미국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참혹한 패배와 피바다를 경험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학살과 무차별적인 용단폭격 등은 한국인들의 공미 심리를 한층 강화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공미를 기초로 삼는 숭미주의가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원시인들의 맹수 숭배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을 처리리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공포감을 방어하고 합리화한다. 공미 심리는 무엇보다 건디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것을 숭미로 포장하거나 대체하기 시작했다. 즉 한국인들은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을 한국을 전쟁과 빈곤의 수렁에서 구해준 은인 나라이자 민주주의의 종주국, 최고의 선진국으로 여기면서 떠받치고 숭배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시대와 윤석열 내란을 경험하면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 즉 숭미주의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다. 내란 극우세력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트럼프의 강도질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부정의

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한 것이다. 숭미의 외피가 벗겨지면 그 아래 숨어있던 공미가 드러나는 법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숭배할 가치가 없는 강대국으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공포, 즉 공미 심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공포는,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하다는 패배주의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13척의 배만 가지고 있는 한국이 어 떻게 130척 넘는 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싸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번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공미에 기초하는 미국에 대한 패배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하루빨리 공미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미국의 압박과 수탈을 막아낼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죽음이 없는 일터, 전북이 앞장서 실천하자

문명국가에서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비용 절감 이유로 안전설비와 관리 인력을 줄이고 위험을 노동자의 목숨과 맞바꾸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산재 근절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2천100명. 이 중 827명이 추락,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589명에 달한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북 지역 산재 사망자는 70여 명에 달했다. 건설 현장의 추락사, 제조업 공장의 기계 끼임, 농·축산업의 기계 전도와 밀폐공간 질식사 사고가 반복됐다.

전북은 산업 구조상 산재 취약성이 높다. 도내 전체 사업장의 90% 이상이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며 하청·재하청 구조가 만연하다. 특히 군산과 익산의 제조업, 전주와 완주의 건설·물류업, 김제·부안의 농·축산업 현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환경에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보호구 지급조차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와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도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질타와 사후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위험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돼야 한다. 전북처럼 영세·하청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공동으로 두는 '지역안전지원센터' 설치도 필요하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리한 야간노동 제한, 다단계 하청 구조 철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전북의 농·축산업 분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언어 장벽과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국어 안전매뉴얼과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게 실효성 있는 형벌을 부과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설비 투자와 현장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노동청, 산업안전공단이 협력해 전북 전역의 모든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고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은 GDP 수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비로소 증명된다. 산재는 예방이 가능한 범죄다. 전북이 산재 제로를 달성하는 모범 지역이 될 때, 우리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전북이 선도하자.

문화재 열전



**김제향교대성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교육기관, 향교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전북 김제시 향교길 89-3 (교동)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인)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장수지국 010-8826-8049	장수지국 010-8826-8049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발견의 기쁨 / 이동순

누더기처럼  
함석과 판자를 다닥다닥 기운  
낡은 창고 벽으로 그 씨앗은 날려 왔을 것  
이다  
거기서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고  
창고 벽에 부딪쳐  
그 역사와 비행기와

영경귀는 대충 그곳에 마음 정하고 씨앗  
터웠을 것이다  
사람도 정처 없이  
이렇게 이룬 터전 많았으리라  
다른 곳은 풀이 없는데  
창고 틈새에만 유난히 더부룩 돋았다  
말이란 놈이 그늘 찾아

창고 옆으로 왔다가 그 풀을 보고  
맛있게 뜯어먹고 갔다  
새 풀을 발견한 기쁨 참지 못하고  
연신 발굽을 차며  
히히힝 소리 질러댔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

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시집으로 개밥풀,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철조망 조국,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 등이 있다. 2003년 민중서사시 흥병도(전5부작10권)을 발간했다.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3-8800

https://www.jeonbuktimes.co.kr

# 무소속 3선 심 민 군수, 독심 행정 11년 임실, 관광객 1000만 시대 열다

무소속 3선으로 임실군 역사를 새롭게 쓴 심 민 군수의 올해는 남 다르고 뜻깊다. 민선 8기 3년차, 이제 12년의 임기 중 딱 1년 남짓 남았다. 과거 어두웠던 임실군수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그는 '초선도 재선도, 삼선도 모두 임기를 채운 첫 군수'라는 당연하면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운 단체장으로 임실군 민선 차치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초치일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그의 독심 행정은, 그 어디에서도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오늘날의 임실을 만들었다. 잠자고 있던 지역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려 관광의 불모지를 전국적 관광지로 만들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기준, 2018년 498만명이던 방문객 수는 2024년 888만명으로 78% 증가했으며,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기 내 강조했던 천만 관광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곳곳에는 주민 생활에 편의를 주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고령화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무인헬기 방제, 농기계 임대 사업 등 다양한 농업정책에 어르신들을 위한 이마용료 지원, 경로당 개선 등 효심 정책, 봉황인재학당 건립 등 대도시 부럽지 않은 교육정책, 대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등 주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최근에는 임실군을 대표한 치즈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영구향 신포 저지층 육성치즈 육성과 대장암에 효과적인 무가당요구르트 전면내세우며, 임실N치즈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년, 심 민 군수는 "끝까지 처음처럼,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며, 임실군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인터뷰] 심 민 임실군수 .....

## “끝까지 처음처럼... 오로지 임실군민 위해 혼신”

심 민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처음 임실군수로 취임하면서 깨끗한 군수, 일 잘하는 군수, 임기를 마치는 군수가 되어 보 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군민들께 약속했다"며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덧 민선 6기를 야심 차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민선 7기를 지나 12년의 임기 중 이제 1년만을 남겨 놓게 됐다"며 "그간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못다 이룬 것들도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 8기 3선을 시작하면서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을 약속했는데,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등 옥정호 관광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옥정호는 물론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 관광벨트 연계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군수는 "이들 사업을 비롯하여 그동안 독심 있게 추진해 왔던 11년 간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1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며,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임실은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민선 8기 마지막 남은 1년도 오로지 임실군민을 바라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2024년 888만명 방문 옥정호·붕어섬 관광개발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민선 8기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예산 운용에 임실군 역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심 민 군수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3년에는 2,060억원, 2024년 2,011억원, 2025년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1,970억원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임실군의 전체 예산은 최근 3년간 어려운 예산확보 여건 속에서도, 2023년도 5,835억원, 2024년도 5,741억원,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준 5,546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광을 비롯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농업 등 군정 핵심 분야에 전략적 재정을 투입, 지속 가능한 임실 성장동력 마련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임실 정주활력센터가 지하 1층과 지상 8층 규모로 연내 착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남녀 사우나 시설과 영화관 등 주민복지와 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최대 관광 명소로

임실군이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핵심 전략 사업은 단연 '섬진강 르네상스'이다. 심 민 군수는 1999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도 개발이 제한된 옥정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5년 섬진강댐 임실 수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관광개발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옥정호 수변과 붕어섬을 연결하는 420m 길이의 출렁다리는 지난 2022년 10월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15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옥정호를 방문, 임실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전국적 관광명소로 떠오른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해, 총 89.3km에 달하는 옥정호 물안개길, 옥정호 스카이라이프, 100m 높이 목조 전망대를 만들고 3만여평 '자라섬' 관광지 조성을 통해 옥정호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 ▲ 치즈테마파크, 세계적 축제 의장으로

2015년 6만명 방문으로 시작한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인 58만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최우수 3대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그동안 정성껏 가꾸어 온 테마파크 내 장미원 조성이 완료되면서 지난 5월 임실군 월간 방문객 수 역대 최대인 102만명 유치를 기여하며 천만 관광



임실N치즈축제



오수 공공임대아파트조감도



성수산 레포츠시설



옥정호출렁다리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군은 내년 봄에는 이곳에서 장미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여름에는 아쿠아 페스티벌,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 축제, 겨울에는 산타축제가 전국 유일의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반려동물 관광도시 도약

197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주인을 구한 종견' 설화는 오수면이 주 무대다. 군은 지역 고유의 자산을 스토리텔링 하여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 육성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군은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반려산업과를 신설하고, 관광 기반 시설 조기 준공은 물론, 인력 양성과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오수를 전국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지원센터(80억원)와 오수

의견관광지 정비(50억원),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20억원), 공공동물 장묘시설(50억원)을 완료했다.

특히, 세계 100여개의 명견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180억원)을 통해 세계명견 아트뮤지엄과 핏케어션을 선보이고, 반려누리 학습센터(인력양성) 조성(30억원)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 ▲ 성수산 사선대 힐링관광지로 재탄생

고려와 조선의 건국 설화를 간직한 성수산이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오토캠핑장(14면), 카라반(6동), 캐빈하우스(4동)로 구성된 국민여가캠핑장을 비롯해 산림휴양시설(본관 12실, 별관 5실), 숲속야영장(5실, 사이트 8개소) 조성을 완료해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쥘라인, 트리탑 전망대 등을 갖춘 산림 레포츠시설을 올해 7월 준공, 수타자를 선정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 공공임대아파트 대거 건립, 정주여건 개선

### ▲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농업

농업 분야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 행정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156억원)이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해마다 심화되는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83명을 시작으로 2024년 216명, 2025년 267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를 매년 2회 드론을 통해 현장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 영국 황신포 저지층 육성치즈+무가당요구르트 명품 기획

6차 산업화의 전국적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한 임실N치즈산업은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이 높은 저지 유리로 임실치즈의 고품격화를 꾀하고 있다.

핵심 전략으로 저지층 젖소 도입과 육성, 프리미엄 치즈 생산 기반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에는 국립축산과학원과 2025년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사회안전망 강화 및 다양한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강화와 군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재난 대응, 복지, 교육환경 개선,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군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행정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69억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오수(480억원), 관촌(372억원) 풍수해 정비사업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활권 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도 강화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2,538명의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 목욕비, 여가·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 ▲ 군민 중심형 교육·문화정책 활성화

교육정책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하다. 지난 2018년 개원 이후 올해도 8년제를 맞이한 봉황인재학당은 대도시에도 버금가는 우수 강사진과 수준별 맞춤형 교과 수업, 진로·진학 컨설팅 등 미래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지자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124억원)에 선정되며 전 주기에 걸친 교육지원 체계 정비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220억원)에 선정되어 임실 동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 주변의 고질적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